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uctures, Contents and a Text Comparison of a
Quatrain with Seven Words to a Line in *Hyangsansamchebeop*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1. 서 론	4.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와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의 텍스트 비교
2.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선집 및 저작 관련 사항	5. 결 론
3.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내용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중 칠언절구 51수를 대상으로 하여 칠언절구의 구성, 선집 및 저작 관련 사항, 칠언절구의 내용,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텍스트와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의 텍스트 비교 순으로 살펴보았다.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의 칠언절구 51수는 『백거이문집』에서 선집 되었는데, 주급성의 『백거이집전교』를 참고하면, 권13/15수, 권14/10수, 권15/5수, 권16/2수, 권18/3수, 권19/4수, 권23/1수, 권27/1수, 권34/1수, 권35/5수, 권37/1수이다. 3수는 『백거이문집』에 실리지 않았다.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 시에 대한 저작 관련사항을 보면, 저작시기는 30대와 40대의 저작이 가장 많이 선집 되었고, 저작 장소는 장안이 중심이었고, 다음은 낙양, 강주, 하궐, 주질, 충주, 향주, 장안-강주 도중이었다. 벼슬살이는 저작시기 및 저작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벼슬살이를 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30대에 장안, 주질, 하궐을 중심으로 풍유시를 지었고, 40대에 장안, 강주, 충주를 중심으로 일부의 풍유시와 대부분의 한적시를 지었으며, 50대는 장안과 향주, 60대와 70대는 낙양에서 한적시와 감상시들을 지었다. 시의 내용은 백거이의 일상들이 담겨진 것으로 ‘인물교류’ 22수, ‘감회’ 19수, ‘풍광’ 7수, ‘영사(詠史)’ 3로 4개 분야의 51수이다.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인 『향산삼체법』 A본과 중국의 주급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 B본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본과 B본의 원문에 글자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보면, A본과 B본의 글자가 유사한 글자여서 해석상의 차이가 별로 없는 사례들이 있었고, A본과 B본의 글자가 대조적이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며, A본과 B본의 글자 중 문장의 전후 해석으로 보거나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A본의 글자가 옳은 경우, 그리고 B본의 글자 뜻이

* 본 연구는 2014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본 연구는 2013년도 불교천대중 중앙박물관의 고산 천혜봉 도서 기증 기념 학술회의(2013. 12. 21)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4년 3월 2일 최종심사일: 2014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3월 20일

더 적합한 경우의 사례들이 있었다. 둘째, A본과 B본의 시 제목에 차이가 있거나, B본의 시 제목에 소주(小注)가 있어서 시의 제목을 분명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나, A본과 B본의 시 제목이 같더라도 B본의 주석에 의해 잘못되거나 교정된 글자들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 분야, 한문학 분야, 백거이 시를 연구하는 한시 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 향산삼체법의 칠언절구,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 주금성(朱金城)의 백거이집전교

<ABSTRACT>

This paper engages in structures, contents and a text comparison of the 51 poems of a quatrain with seven words to a line, which appear in the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of *Hyangsansamchebeop*. It will explore three themes in the following order: i) the composition, selected works and writing-related matters of the *Hyangsansamchebeop* poems; ii) the contents of the *Hyangsansamchebeop* poems; and a text comparison of *Hyangsansamchebeop* poems with *Zhu Jincheng's Bai Juyi ji jian jiao*(白居易集箋校).

51 poems of *Hyangsansamchebeop* were collected in *Anthology of Poems by Bai Juyi*(白居易文集). *Bai Juyi ji jian jiao* cites that there are 15 poems from Book 13, 10 poems from Book 14, 5 poems from Book 15, 2 poems from Book 16, 3 poems from Book 18, 4 poems from Book 19, 1 poem from Book 23, 1 poem from Book 27, 1 poem from Book 34, 5 poems from Book 35, and 1 poem from Book 37. 3 poems did not appear on the *Anthology of Poems by Bai Juyi*(白居易文集).

The poems included in *Hyangsansamchebeop* show us matters related to the writing of the poems such as the time, place or government post Bai was in when he wrote the works. The most works from his 30s and 40s were selected and from his writings done in Changan, Luoyang, Kangzhou, Xiagui, Zhouzhi, Zhongzhou, Hangzhou, and from Changan to Kangzhou along the way. Bai Juyi went through various government posts and wrote a lot of poems in his 30s up to 70s; he wrote a satirical poem in his 30s in Changan, Zhouzhi and Xiagui; some of the satirical and most of the quiet poem in his 40s in Changan, Kangzhou and Zhongzhou; a quiet and sentimental poem in his 50s in Changan and Hangzhou and in his 60s and 70s in Luoyang. His official life bore close relations to the writing time and place and had a great influence in the creation of the poems. The poems contain scenes of Bai Juyi's everyday life and surroundings with 22 poems for 'Personal relationships with others', 9 poems for 'Sentiments', 7 poems for 'Scenery' and 3 poems for 'songs of historical facts'. Altogether, there are 51 poems in 4 categories.

A comparison done of the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of *Hyangsansamchebeop* (Model A), created around the 10th year of King Jungjong's reign, with Zhu Jincheng's *Bai Juyi ji jian jiao* (Model B)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original texts of Model A and Model B have differences in letters: there are instances of Model A and Model B having similar Chinese characters so that there are no great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instances of Model A and B having contrasting letters so that it is difficult to know the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instances where later annotations show that the letter of Model A is more correct; and instances where later annotations show that the letter of Model B is more correct. Secondly, the original texts of Model A and Model B have differences in poem's title: the annotations of poem's title which appear in Model B complete the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text; A and Model B have the same titles, yet Model B sometimes has proved wrong and corrected letters for the poems in the anno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most fundamental studies of Bibliography, Chinese Literature, Chinese poetry which includes the study of Bai Juyi's poetry.

Key words: *Hyangsansamchebeop*,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of *Hyangsansamchebeop*, a quatrain with seven words to a line of *Hyangsansamchebeop*, *Bai Juyi ji jian jiao*, Zhu Jincheng's *Bai Juyi ji jian jiao*

1. 서론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은 조선의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 이용(李瑢)이 백거이(白居易)의 시집 중에서 오언율시 72수, 칠언율시 62수, 칠언절구 51수의 총 185수를 뽑아 세종 27년(1445)경에 편찬하여 간행한 단권본이다. 안평대군이 백거이의 시를 왜 선집 하였는지는 「향산삼체법」 뒤에 붙인 그의 발문에 잘 나타난다. 발문에 의하면,¹⁾ “백거이의 시는 자못 소회를 푸는 맛이 있어 達道한 사람들이 많이 사랑한다. 옛 사람 중에 그 시를 편집한 이가 혹은 養恬²⁾이라 하고 혹은 助道라 했다. [일부 중략] 이 책을 출판하여 이름을 「향산삼체법」이라 하고 달도한 자들과 더불어 읽으려 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백거이의 문집은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고, 선집인 「향산삼체법」도 초주갑인자본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서 연구자들에게 어려움이 많았고, 후대의 번각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과 이설들이 무성하였다. 필자는 2010년 4월에 중종 10년(1515)경에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으로 간행한 국내외의 유일본인 「향산삼체법」을 발굴하여 그에 관한 서지적 연구,³⁾ 및 오언율시에 관한 텍스트 연구⁴⁾ 및 칠언 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⁵⁾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향산삼체법」과 관련된 기존의 이설들을 정리하고, 텍스트의 상세한

1)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 世宗 27年(1445) 跋文.

“白樂天之詩 頗有遺懷之作 故達道之人率多愛之 古人選錄其詩者 或名曰養恬 或名曰助道 … 今以三體類而出之 名曰香山三體法 庶幾與達道者共之云 乙丑六月匪懈堂書.”

2) 「莊子」 <外篇> 第16 繕性.

“古之治道者 以恬養知 知生而無以知爲也 謂之以知養恬 [옛날의 도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욕심을 끊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있음으로써 지혜를 길렀다. 나면서부터 지혜로써 행동하는 일이 없었으니, 그를 두고서 지혜로써 욕심이 없이 깨끗하고 담담함을 기르는 것이라 말한다].”

3) 姜順愛,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5-32.

4) 姜順愛,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오언율시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43-74.

5) 姜順愛,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55輯(2013), 65-107.

연구에도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게 되었다.

이 판본은 국내에서 『향산삼체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저본이지만, 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유통된 여러 판본과 내용의 비교가 필요하고, 그 결과의 바탕위에서만 텍스트의 이해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유통된 판본에 대해서는 주금성(朱金城)이 명(明) 만력(萬曆) 34년(1606)에 마원조(馬元調) 간행의 『백거이장경집(白居易長慶集)』을 저본으로 하고 여러 간본으로 전교한 『백거이집전교』를 출간하였다. 백거이 시 원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향산삼체법』과 『백거이집전교』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향산삼체법』 중 칠언절구 51수를 대상으로 하여, 문헌 조사 및 내용분석을 통해 칠언절구의 구성, 선집 및 저작 관련 사항을 밝히고, 『향산삼체법』에 실린 칠언절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과 『백거이집전교』의 텍스트 및 교감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 분야, 한문학 분야, 백거이 시를 연구하는 한시 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선집 및 저작 관련 사항

『향산삼체법』 칠언절구의 시 구성은 제135수부터 제185수(제104제-제146제)까지 이들의 구성 체계에 대해 <표 1>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표 1> 「향산삼체법」 칠언절구 제135수-제185수(제104제-제146제)

구분	시의 제목(운자) 「백거이집전교」 수록 권수	저작의 시기, 장소, 벼슬	비고
제135(33장후면)	秋雨中贈元九(先), 권13(p.727-728).	貞元 18(802), 長安.	백거이 31세
제136수(33장후면-34장전면)	和友人洛中春感(眞), 권13(p.731-732).	永貞元年(805), 長安, 校書郎	34세
제137수(34장전면)	華陽觀中八月十五日夜招友翫月(歌), 권13(p.733-734).	永貞元年(805), 長安, 校書郎	34세
제138수(34장전면)	下邳莊南桃花(灰), 권13(p.735-736).	貞元 20(804), 下邳, 校書郎	33세
제139수(34장전면-34장후면)	三月三十日題慈恩寺(元), 권13(p.736-737).	永貞元年(805), 長安, 校書郎	34세
제140수(34장후면)	縣南花下醉中留劉五(微) 권13(p.745).	元和 2(807), 藍屋, 藍屋尉	36세
제141수(34장후면)	醉中留別楊六兄弟(陽), 권13(p.746).	元和 2(807), 藍屋, 藍屋尉	36세
제142수(34장후면-35장전면)	和王十八薔薇澗花時有懷蕭侍御兼見贈(侵), 권13(p.748).	元和 2(807), 藍屋, 藍屋尉	36세
제143수(35장전면)	重到毓材宅有感(眞), 권13(p.756).	貞元 16(800), 洛陽.	29세
제144수(35장전면)	長安正月十五日(尤), 권13(p.772).	貞元 16(800), 長安.	29세
제145수(35장전면-35장후면)	晚秋閑居(庚), 권13(p.777).	貞元 16(800) 以前	29세 이전
제146수(35장후면)	途中寒食(陽), 권13(p.779).	貞元 16(800) 以前	29세 이전
제147수(35장후면)	冬夜示敏巢(庚), 권13(p.786-787).	貞元 16(800) 以前	29세 이전
제148수(35장후면-36장전면)	花下自勸酒(文), 권13(p.790).	貞元 17(801)	30세
제149수(36장전면)	題李十一東亭(尤), 권13(p.791).	元和 3(808), 長安, 左拾遺, 翰林學士.	37세
제150수(36장전면)	杏園花落時招錢員外同醉(支), 권14(p.803-804).	元和 5(810), 長安, 左拾遺, 翰林學士.	39세
제151수(36장전면-36장후면)	禁中夜作書與元九(支) 권14(p.805-806).	元和 5(810), 長安, 左拾遺, 翰林學士.	39세
제152수(36장후면)	夜惜禁中桃花因懷錢員外(東), 권14(p.824-825).	元和 4(809)-元和 6(811), 長安, 翰林學士.	38세-40세
제153수(36장후면)	嘉陵夜有懷二首 중 1(侵), 권14(p.836-837).		

구분	시의 제목(은자) 『백거이집전교』 수록 권수	저작의 시기, 장소, 벼슬	비고
제154수(36장후면-37장전면)	嘉陵夜有懷二首 중 2(東), 권14(p.836-837).		
제155수(37장전면)	望驛臺(麻), 권14(p.838-839).		
제156수(37장전면)	暮立(先), 권14(p.856).	元和 9(814), 下邳.	43세
제157수(37장전면-37장후면)	寒食夜有懷(先), 권14(p.858).	元和 9(814), 下邳.	43세
제158수(37장후면)	王昭君二首 중 1(東), 권14(p.870-873).	貞元 4(788)	17세
제159수(37장후면)	王昭君二首 중 2(支), 권14(p.870-873).	貞元 4(788)	17세
제160수(37장후면)	遊城南留元九李二十晚歸(微), 권15(p.888-889).	元和 10(815), 長安, 太子左贊善大夫	44세
제161수(38장전면)	題王侍御池亭(歌), 권15(p.911-912).	元和 10(815), 長安, 太子左贊善大夫	44세
제162수(38장전면)	浦中夜泊(蒸), 권15(p.944).	元和 10(815), 長安-江州途中.	44세
제163수(38장전면)	望江州(元), 권15(p.959).	元和 10(815), 江州, 江州司馬.	44세
제164수(38장후면)	夜泊(尤), 『白居易集箋校』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		
제165수(38장후면)	答春(庚), 권16(p.982-983).	元和 11(816), 江州, 江州司馬.	45세
제166수(38장후면)	階下蓮(東), 권16(p.1004).	元和 11(816), 江州, 江州司馬.	45세
제167수(39장전면)	望郡南山(刪), 『白居易集箋校』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		
제168수(39장전면)	竹枝詞(齊), 권18(p.1183-1185). 『白居易集箋校』에는 竹枝詞四首임. 그중의 一首임	元和 14(819), 忠州, 忠州刺史	48세
제169수(39장전면)	三月三日(先), 권18(p.1198).	元和 15(820), 忠州, 忠州刺史	49세
제170수(39장후면)	紫薇花(陽), 권19(p.1240-1241).	長慶 元年(821), 長安, 主客郎中, 知制誥.	50세
제171수(39장후면)	舊房(支), 권19(p.1261-1262).	長慶 元年(821), 長安, 主客郎中, 知制誥.	50세
제172수(39장후면)	暮江吟(東), 권19(p.1300-1301).	元和 11(816)-元和 13(818), 江州, 江州司馬.	45세-47세
제173수(40장전면)	秋房夜(陽), 권19(p.1303).	元和 11(816)-長慶 2(822)	45세-51세
제174수(40장전면)	潮(灰), 권23(p.1556).	長慶 4(824), 杭州, 杭州刺史.	53세
제175수(40장전면)	春風(灰), 권27(p.1928).	太和 5(831), 洛陽, 河南尹.	60세
제176수(40장후면)	戲答夢得(陽), 『白居易集箋校』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구분	시의 제목(운자) 『백거이집전교』 수록 권수	저작의 시기, 장소, 벼슬	비고
제177수(40장후면)	早春持齋齊皇甫十見贈(眞), 권34(p.2336-2337).	開成 3(838), 洛陽, 太子少傅分司.	67세
제178수(40장후면-41장전면)	前有別柳枝絕句夢得繼和云春盡絮飛留不得隨風好去落誰家又復戲答(麻), 권35(p.2416).	開成 5(840), 洛陽, 太子少傅分司.	69세
제179수(41장전면)	五年秋病後獨宿香山寺三絕句 중 1(庚), 권35(p.2428-2429).	開成 5(840), 洛陽, 太子少傅分司.	69세
제180수(41장전면)	五年秋病後獨宿香山寺三絕句 중 2(灰), 권35(p.2428-2429).	開成 5(840), 洛陽, 太子少傅分司.	69세
제181수(41장전면)	五年秋病後獨宿香山寺三絕句 중 3(尤), 권35(p.2428-2429).	開成 5(840), 洛陽, 太子少傅分司.	69세
제182수(41장전면)	勸夢得酒(陽), 권35(p.2441).		
제183수(41장후면)	宿府池西亭(靑), 권37(p.2557-2558).	會昌 5(845), 洛陽, 刑部尚書致仕.	74세
제184수(41장후면)	傷春詞(支), 권18(p.1221).	長慶 3(823)以前	52세 이전
제185수(42장전면)	賦得聽邊鴻(文), 권15(p.900).	元和 10(815), 長安, 太子左贊善大夫	44세

위의 <표 1>의 구성과 저작사항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칠언절구는 51수인데 제135수-제152수, 제155수-제157수, 제160수-제178수, 제182수-제185수까지 모두 단일 제목이고, 제153-제154수, 제158수-제159수, 제179수-제181수는 연작시이다.

② 시의 운자는 모두 평聲의 운자를 사용하였는데, 先(제135수), 眞(제136수), 歌(제137수), 灰(제138수), 元(제139수), 微(제140수), 陽(제141수), 侵(제142수), 眞(제143수), 尤(제144수), 庚(제144수), 陽(제146수), 庚(제147수), 文(제148수), 尤(제149수), 支(제150수), 支(제151수), 東(제152수), 侵(제153수), 東(제154수), 麻(제155수), 先(제156수), 先(제157수), 東(제158수), 支(제159수), 微(제160수), 歌(제161수), 蒸(제162수), 元(제163수), 尤(제164수), 庚(제165수), 東(제166수), 刪(제167수), 齊(제168수), 先(제169수), 陽(제170수), 支(제171수), 東(제172수), 陽(제173수), 灰(제174수), 灰(제175수), 陽(제176수), 眞(제177수), 麻(제178수),

庚(제179수), 灰(제180수), 尤(제181수), 陽(제182수), 靑(제183수), 支(제184수), 文(제185수)이다. 이들 운자 중 자주 사용된 것은 陽 6회, 支 5회, 東 5회, 尤 4회, 先 4회 등이다. 칠언절구의 경우에는 1, 2, 4구 끝 자에 운자를 붙이는 것이 정격이고, 제1구 끝 자에 붙이지 않은 경우가 변격이다. 정격의 압운을 한 경우는 제143수, 제144수, 제145수, 제150수, 제152수, 제153수, 제156수, 제158수, 제164수, 제165수, 제167수, 제168수, 제171수, 제172수, 제173수, 제174수, 제175수, 제177수, 제178수, 제181수, 제183수, 제184수, 제185수로 51수 중 23수에 불과하다. 변격의 경우가 28수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⁶⁾

③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의 칠언절구 51수는 모두 「백거이문집」에서 선집 되었는데, 주금성의 「백거이집전교」를 참고하면, 권13/15수, 권14/10수, 권15/5수, 권16/2수, 권18/3수, 권19/4수, 권23/1수, 권27/1수, 권34/1수, 권35/5수, 권37/1수이다. 3수는 「백거이문집」에 실리지 않았다.

④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 시에 대한 저작 관련사항은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저작 당시의 벼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저작 시기는 10대 2수, 20대 5수, 30대에 13수, 40대에 13수, 50대에 4수, 60대 6수, 70대 1수, 기타 7수이다. 30대와 40대의 저작이 각 13수로 가장 많이 선집 되었고, 다음은 60대 6수, 20대 5수, 50대 4수, 10대 2수, 60대 1수이며, 기타 7수는 시기를 알 수 없었다.

10대에는 2수가 선집 되었는데 17세인 정원 4년(788)에 읊은 제158수-제159수의 연작시이다. 20대에는 5수가 선집 되었는데, 29세 이전인 정원 16년(800) 이전에 제145-제147수의 3수, 29세인 정원 16년(800)에 제143수와 제144수의 2수가 이루어졌다. 30대에는 13수가 선집 되었는데, 30세인 정원 17년(801)에 제148수의 1수, 31세인 정원 18년(802)에 제135수의 1수, 33세인 정원 20년(804)에 제138수의 1수, 34세인 영정 원년(805)에 제136수, 제137수와 제139수의 3수, 36세인 원화 2년(807)에 제140수-제142수의 3수, 37세인 원화 3년(808)에 제149수의

6) 姜順愛,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28.

1수, 39세인 원화 5년(810)에 제150수와 제151수의 2수, 38세-40세 사이의 원화 4년(809)-원화 6년(811)의 제152수의 1수이다. 40대에는 13수가 선집 되었는데, 43세인 원화 9년에는 제156수-제157수의 2수, 44세인 원화 10년에 제160수-제163수 및 제185수의 5수, 45세인 원화 11년(816)에 제165수와 제166수의 2수, 48세인 원화 14년(819)에 제168수의 1수, 49세인 원화 15년(820)에 제169수의 1수, 45세-51세 사이의 원화 11년(816)-장경 2년(822) 사이의 2수이다. 50대는 4수가 선집 되었는데, 50세인 장경 원년(821)에 제170수와 제171수의 2수, 53세인 장경 4년(824)에 제174수의 1수, 52세 이전인 원화 10년(815) 이전에 제184수의 1수이다. 60대는 6수가 선정되었는데, 60세인 태화 5년(831)에 제175수의 1수, 67세인 개성 3년(638)에 제177수의 1수, 69세인 개성 5년(840)에 제179수-제181수의 4수이다. 70대는 74세인 회창 5년(845)에 제183수의 1수가 선정되었다.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은 제153수-제155수, 제164수, 제167수, 제176수, 제182수의 7수이다.

둘째, 저작 장소는 장안 14수, 낙양 8수, 강주 4수, 하규 3수, 주질 3수, 충주 2수, 항주 1수, 장안-강주 도중 1수, 기타 15수였다. 칠언절구의 저작 장소는 주로 장안이 중심이었고 다음은 낙양, 강주, 하규, 주질, 충주, 항주, 장안-강주 도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저작시기와 저작장소를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20대의 저작 장소는 장안과 낙양이 각 1수였고, 30대의 저작 장소는 장안 8수, 주질 3수, 하규 1수의 12수였다. 40대는 강주 4수, 장안 3수, 충주 2수, 하규 2수, 장안-강주 도중 1수의 12수이었다. 50대는 장안 2수, 항주 1수의 3수였다. 60대는 낙양 6수였고, 70대는 낙양 1수였다.

20대와 30대의 저작 장소는 장안을 중심으로 주질, 낙양, 하규였다. 40대는 강주, 장안, 충주, 하규, 장안-강주 도상에서 시작(詩作)이 이루어졌고, 50대는 장안과 항주였다. 60대와 70대는 낙양이 저작 공간의 중심이었다.

셋째, 백거이의 저작과 관련된 벼슬을 보면, 10대와 20대는 벼슬이 없었고, 29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이후, 다양한 벼슬을 거쳤는데, 이러한 벼슬살

이는 그의 저작 시기 및 저작 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되면서 시의 저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30대인 장안, 주질, 하규를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33세인 정원 20년(804)에는 하규에서 교서랑, 34세인 영정 원년(805)에는 장안에서 교서랑, 36세인 원화 2년(807)에는 주질에서 주질위, 37세와 39세인 원화 3년(808) 및 원화 5년(810)에는 장안에서 좌승유, 한림학사, 38세-40세인 원화 4년(809)-원화 6년(811)에는 장안에서 한림학사를 거쳤다.

백거이는 이 시기에 풍유시(諷諭詩)를 많이 지었는데 이를 통해 현실 문제를 풍자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려는 뜻을 담았다. 이들 풍유시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백성들의 질병과 고통, 세력자들의 권력남용과 횡포, 권문세가와 귀족들의 사치와 낭비, 애국사상의 고취, 변방 이민족에 대한 전쟁활동, 불합리한 사회제도, 부녀자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동정 등을 다루었다.⁷⁾

40대에는 장안, 강주, 충주를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44세인 원화 10년(815)에는 장안에서 태자좌찬선대부, 44세-45세인 원화 10년(815)-원화 11년(816)에는 강주사마, 48세-49세인 원화 14년(819)-원화 15년(820)에 충주자사를 지냈다.

이 시기는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시기로 풍유시가 일부 있지만 풍유시보다는 한적시(閑適詩)를 많이 지었다. 백거이의 한적시는 자기수양의 의지(獨善之義)를 담아 즉흥적인 감상과 여유자적이라는 사대부 문인의 전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데 집중되었다.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兼濟之志) 일시적으로 ‘獨善’을 한다고 했지만, 한적시에 집중되었고 풍유시다운 풍유시로 복귀하지 못했다.⁸⁾

50대는 장안과 항주를 중심으로, 60대와 70대는 낙양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50대는 50세인 장경 원년(821)에 주객랑중, 지제고, 53세인 장경 4년(824)에 항주자사를 지냈고, 60세인 태화 5년(831)에 하남윤, 67세와 69세인 개성 3년(838)과 개성 5년(840)에 태자소부문사를 지냈으며, 74세인 회창 5년(845)에 형부상서로 치사하였다. 각 지역별로 벼슬살이와 관련되어 장안, 항주, 낙양을 중심으로 여러

7) 허권수, “한국한문학(韓國漢文學)에서의 백거이문학(白居易文學)의 수용양상(受容樣相),” 『한문학보』 26권(2012), 269.

8) 이준식, “백거이론(白居易論),” 『중국문학연구』 14권(1996), 100.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벼슬살이를 거치면서 한적시와 감상시들을 많이 지었다.

감상시는 사물이 외부에서 끌어당기고, 정리(情理)가 내면에서 움직여서, 느낀 것을 따라서 탄식하고 읊조린 것으로 나타난 것들이다(又有事物牽於外 情理動於內 隨感遇而形於歎詠者 一百首 謂之感傷詩).⁹⁾

3.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내용

「향산삼체법」 칠언절구의 내용에는 대부분 백거이의 일상이 담겨 있다. 그의 일상 안에 담겨진 것을 몇 가지 키워드로 도출하면 ‘인물교류’ 22수, ‘감회’ 19수, ‘풍광’ 7수, ‘영사(詠史)’ 3수로 4개 분야의 51수이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인물교류

백거이가 교류했던 인물들과 주고받은 시들이 있는데, 제135수, 제136수, 제137수, 제140수, 제141수, 제142수, 제143수, 제147수, 제149수, 제150수, 제151수, 제152수, 제155수, 제160수, 제161수, 제176수, 제177수, 제178수, 제179수, 제180수, 제181수, 제182수의 22수이다.

위의 시에서 백거이와 왕래가 있었던 사람들을 백거이의 시에 관련된 사례별로 살펴보면, 원진은 제135수, 제137수, 제151수, 제155수, 제160수의 5수, 유우석은 제176수, 제178수, 제182수의 3수, 문창상인은 제179수, 제180수, 제181수의 3수, 전원외는 제150수와 제152수의 2수이다. 기타 인물을 보면, 유오는 제140수의 1수, 양육 형제는 제141수의 1수, 왕십팔은 제142수의 1수, 이십일은 제149수의 1수, 왕시어는 제161수의 1수, 황보십은 제177수의 1수이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우인(友人)(?)은 제136수의 1수, 민소(?)는 제147수의 1수, 육재택(毓材

9) 白居易, 顧學頤 校點, 『白居易集』 『與元九書』 (大北: 里仁書局, 1980).

宅)(?)은 제143수의 1수이다. 이에 대해 원진, 유우석, 문창상인, 전원외, 기타인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진(元稹)

원진(元稹)¹⁰⁾과 관련된 시는 제135수, 제137수, 제151수, 제155수, 제160수의 5수이다. 제135수인 ‘秋雨中贈元九’는 백거이가 31세이던 정원 18년(802)에 장안에서 가을비 속에 친구인 원진을 그리워하는 쓴 것이다. 제137수인 ‘華陽觀中八月十五日夜招友翫月’은 백거이가 34세이던 영정 원년(805) 교서랑으로 있으면서 지은 시이다. 백거이는 그해 8월 15일 장안의 화양관에 머물면서 원진을 불러 함께 달구경 하면서 화양관에서 원진과 함께 보는 달이 가장 으뜸임을 노래한 것이다. 제151수인 ‘禁中夜作書與元九’는 백거이가 39세이던 원화 5년(810) 장안에서 좌승유, 한림학사로 있을 때, 대궐에서 숙직하는 밤에 써서 친구인 원진에게 준 시이다. 제155수인 ‘望驛臺’는 저작의 시기와 장소는 알 수 없는데, 백거이가 원진의 정안리집(靖安里第) 앞에 있는 버들과 망역대 앞에 떨어진 곳을 보면서 원진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한 것이다. 제160수인 ‘遊城南留元九李二十晚歸’는 백거이가 44세인 원화 10년(815)에 장안에서 태자좌찬선대부로서 있을 때 성남에서 놀고 난 뒤 원진과 이신(李紳)을 두고 돌아간 내용을 다룬 것이다.

② 유우석(劉禹錫)

유우석(劉禹錫)¹¹⁾과 관련된 시는 제176수, 제178수, 제182수의 3수이다. 제176

10)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2 (檀國大學校出版部, 2003), 22. “원진(元稹, 779~831)은 당(唐)의 하남(河南) 사람. 자는 미지(微之). 원화(元和) 초에 좌승유(左拾遺), 태화(太和) 연간에는 무창절도사(武昌節度使)를 지냈다. 시를 잘하여 백거이와 함께 원백(元伯)으로 불리웠고, 그 시체(詩體)는 원화체(元和體)로 불리웠다. 저서는 『元氏長慶集』이 있다. 『舊唐書』 166, 『新唐書』 174.”

11)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2 (檀國大學校出版部, 2003), 623. “유우석(劉禹錫, 772~842)은 당(唐)의 중산(中山) 사람. 자는 몽득(夢得). 정원(貞元) 연간의 진사(進仕). 벼슬은 태자빈객(太子賓客). 시에 뛰어나 백거이로부터 시호(詩豪)로 불리어짐. 서실 이름은 누실(陋室), 저서는 『劉賓客集』, 『外集』이 있다. 『舊唐書』 160, 『新唐書』 168.”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수인 ‘戲答夢得’은 『白居易集箋校』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백거이가 유유석이 보내온 시구에 ‘그대 미치려해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대 나를 만나 미치게 하지 못함이 한스럽구나’라는 글귀를 보고 답한 시이다. 제178수인 ‘前有別柳枝絕句夢得繼和云春盡絮飛留不得隨風好去落誰家又復戲答’은 백거이가 69세인 개성 5년(840)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 때 지은 것이다. 전에 ‘버들가지 꺾어 이별한다’는 절구가 있었는데 유유석이 화답하기를 ‘봄은 다하고 버들개지는 나는데 멈추지 못하니 바람을 따라 날아가서 누구 집에 떨어지는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백거이가 다시 화답한 것이다. 제182수인 ‘勸夢得酒’는 백거이가 언제 지은 시인지 알 수 없지만, 시의 내용에 ‘누구는 공이 있어 기린각에 화상이 되고, 어떤 이는 새로이 도깨비 고을에 귀양보내지나. 두 곳의 영화와 쇠퇴를 그대는 묻지 말게, 남은 봄 다시 두세 잔 마시고 취해보세.’ 라고 하여 백거이가 귀양 갔던 강주시절의 글로 보인다.

③ 문창상인(文暢上人)

문창상인(文暢¹²⁾上人)과 관련된 시는 제179수, 제180수, 제181수의 연작시 3수이다. 이 연작시인 ‘五年秋病後獨宿香山寺三絕句’는 백거이가 69세이던 개성 5년(840)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로 있으면서 지은 것이다. 백거이는 이 해 가을에 앓고 난 뒤 향산사에서 묵었는데, 제1수(제179수)는 향산사 문창상인의 방을 찾아가 묵으면서 첫 가을 달빛의 예 여울소리를 듣는 것을 다루었고, 제2수(제180수)는 술 마시던 무리와 노래하던 짝들은 모두 흩어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데 혼자만 빠른 걸음으로 향산사로 돌아오는 것을 노래하였으며, 제3수(제181수)는 석분천가의 석루위에서 12년을 놀았었는데 이제 한해가 지나면 나이가 70이니 병이 없다 해도 쉬는 것이 마땅하다는 자신의 심경을 노래하였다.

12)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6 (檀國大學校出版部, 2003), 426. “당(唐)의 정원(貞元) 연간의 중. 문장에 뛰어났다.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의 문집에 그와 관련된 서문과 시가 실려 있다. 『柳河東集』 25, 『韓昌黎集』 2, 20.”

④ 전원의외(錢員外)

전원의외(錢員外)¹³⁾와 관련된 시는 제150수와 제152수의 2수이다. 제150수인 ‘杏園花落時招錢員外同醉’는 백거이가 39세이던 원화 5년(810)에 장안에서 좌 습유, 한림학사로 있을 때, 행원(杏園)에 핀 살구꽃이 지는 것을 보고 전원의외를 불러 함께 취한 내용을 노래한 것이다. 제152수인 ‘夜惜禁中桃花因懷錢員外’는 백거이가 39세이던 원화 4년(809)~원화 6년(811) 사이에 장안에서 한림학사로 있을 때 지었다. 백거이는 한밤중 궁중에 휘영청 달빛이 내리비치는 뜨락에 복사 꽃 꽃잎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함께 감상할 수 없는 애석함에 젖어 전원의외를 생각하며 노래한 것이다.

⑤ 기타 인물

백거이와 교류하여 시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오, 양육 형제, 왕십 팔, 이십일, 왕시어, 황보서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우인(友人)(?), 민소(敏巢)(?)와 육재택(毓材宅)(?)이다.

유오(劉五)¹⁴⁾와 관련 있는 제140수인 ‘縣南花下醉中留劉五’는 백거이가 36세 인 원화 2년(807) 주질에서 주질위로 있을 때, 고을 남쪽 꽃 아래에서 취중에 유오를 만나 만류하던 내용을 읊은 것이다.

양육 형제(楊六 兄弟)¹⁵⁾와 관련 있는 제141수인 ‘醉中留別楊六兄弟’는 백거

13)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14 (檀國大學校出版部, 2003), 372. “전원의외(錢員外)의 원외(員外)는 관명이고 이름은 전휘(錢徽)이다. 당의 오흥(吳興) 사람. 자는 위장(蔚章). 기(起)의 아들. 정원(貞元) 연간의 진사(進士). 벼슬은 예부시랑(禮部侍郎), 이부상서(吏部尙書). 『舊唐書』 168, 『新唐書』 177, 『唐才子傳』 4.”

14)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二 (上海古籍出版社, 2008), 636-638. ‘醉後走筆酬劉五主簿長句之贈兼簡張大賈二十四先輩昆季’ 詩의 箋註 부분: “유오주부(劉五主簿): 이름은 미상이다. 이 시에 의거하여 십오 년 전(794)에 부리(符離)에서 서로 알던 옛 친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二 (上海古籍出版社, 2008), 745-746. ‘宿楊家’ 및 ‘醉中留別楊六兄弟’ 詩의 箋註 부분: “양육형제(楊六兄弟): 양여사(楊女士), 양우경(楊虞卿) 형제 등이고, 주금성은 이들 형제가 진사에는 급제하지 못했지만, 삼월 사이에 백거이가 주질에서 장안에 이르러 양여사가(楊女士家)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가 36세이던 원화 2년(807)에 주질에서 주질위로 있을 때, 장안에 있는 양육형제의 집에서 머무르며 지냈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다. 이 무렵에 백거이가 양여사(楊女士)의 누이동생인 양씨부인과 결혼하였으니 처가에서 지냈던 시절로 여겨진다.

왕십팔(王十八)¹⁶⁾과 관련 있는 제142수인 ‘和王十八薔薇澗花時有懷蕭侍御兼見贈’은 백거이가 36세인 원화 2년(807) 주질에서 주질위로 있을 때, 백거이가 왕십팔과 함께 선유사의 장미간에 꽃필 때 소시어(蕭侍御)(?)를 그리워하며 또 자신에게 준 시에 화답한 것이다.

이십일(李十一)¹⁷⁾과 관련 있는 제149수인 ‘題李十一東亭’은 백거이가 원화 3년(806)에 장안에서 좌습유, 한림학사로 있을 때 이십일은 떠나 있고, 그가 머무르던 동정(東亭)에 올라 가을을 느끼며 읊은 시이다.

왕시어(王侍御)¹⁸⁾와 관련 있는 제161수인 ‘題王侍御池亭’은 백거이가 44세이던 원화 10년(815)에 장안에서 태자좌찬선대부로 있을 때 봄날 왕시어의 연못과 정자의 풍경을 바라보고 노래한 것이다.

황보십(皇甫十)¹⁹⁾과 관련 있는 제177수인 ‘早春持齋答皇甫十見贈’은 백거이가 67세이던 개성 3년(838)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문사로 있을 때, 이른 봄 재계(齋戒)중에 황보십의 시에 답한 것이다.

우인(友人)(?)과 관련 있는 제136수인 ‘和友人洛中春感’은 백거이가 34세인 영정 원년(805)에 장안에서 교서랑으로 있을 때, 백거이가 친구에게 낙양 봄의

16)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二 (上海古籍出版社, 2008), 748. ‘和王十八薔薇澗花時有懷蕭侍御兼見贈’ 詩의 箋註 部分: “왕십팔(王十八)은 왕질부(王質夫)임.”

17)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二 (上海古籍出版社, 2008), 791. ‘題李十一東亭’ 詩의 箋註 部分: “이십일(李十一)은 이건(李建)이다.”

18)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二 (上海古籍出版社, 2008), 911. ‘題王侍御池亭’ 詩의 箋註 部分: “왕시어(王侍御)는 왕기(王起)이며 元和年間(806-820)에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 있었다. 이 내용은 『구서(舊書)』 권164 본전(本傳)에 보인다.”

19)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四 (上海古籍出版社, 2008), 2230, 2336-2337. ‘酒熱憶皇甫十’ 및 ‘早春持齋答皇甫十見贈’의 詩의 箋註 部分: “황보십(皇甫十)은 황보서(皇甫署)이다. 황보서는 태화 9년(835) 가을에 택주(澤州)로 부임하였고, 낙양에 이르러서는 하남소윤(河南少尹)에 임명되었다.”

감회를 시로 노래한 것이다.

민소(敏巢)(?)와 관련 있는 제147수인 ‘冬夜示敏巢’는 백거이가 29세 이전인 영정 16년(800) 이전에 지은 것인데, 겨울 밤 화롯불은 사위어가고 등잔 심지도 다하러 하고 간밤에 마주 앉으니 온갖 시름이 일어났던 등잔아래의 우정을 다짐하며 친구인 민소에게 준 시이다.

육재택(毓材宅)(?)과 관련 있는 제143수인 ‘重到毓材宅有感’은 백거이가 29세인 정원 16년(800)에 낙양에서 주인이 없는 육재택을 방문하고 그 감회를 적은 것이다.

3.2 감회

백거이가 감회를 읊은 시가 있는데, 제138수, 제144수, 제145수, 제146수, 제148수, 제153수-제154수의 연작시, 제156수, 제157수, 제162수, 제163수, 제164수, 제170수, 제171수, 제173수, 제174수, 제175수, 제183수, 제184수의 19수이다.

장안 3수, 하규 3수, 낙양 2수, 장안-강주도중 1수, 강주 1수, 항주 1수 등 장소를 알 수 있는 곳이 12수이고, 장소미상이 8수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안

장안에서 감회를 읊은 것은 제144수, 제170수, 제171수의 3수이다. 제144수인 ‘長安正月十五日’은 백거이가 29세인 정원16년(800)에 장안에서 과거시험 응시 준비를 하던중 정월 15일을 보내며 만은 사람들은 즐기지만 자신은 혼자 수김에 잠겨있는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제170수인 ‘紫薇花’는 백거이가 50세인 장경 원년(821) 10월에 장안에서 지은 시이다. 백거이는 당시 주객랑중에서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재천(再遷)되었다. 중서성은 자미성(紫薇省)이라고도 하며 정사의 최고기관이었다. 백거이는 사인의 직무를 맡았으나 그 업무를 즐기지 않아 황혼에 홀로 앉아 있는데 자신의 벗은 없고 백일홍만이 자신을 마주한다는 감회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를 읊은 것이다. 제171수인 ‘舊房’은 백거이가 50세인 장경 원년(821)에 장안에서 주객량중, 지체고로 있을 때 지은 시이다. 옛날 방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 일어나는 늦가을의 감회를 노래하였다.

② 하규

하규(下邳)²⁰⁾에서 감회를 읊은 것은 제138수, 제156수, 제157수의 3수이다. 제138수인 ‘下邳莊南桃花’는 백거이가 33세인 정원 20년(804)에 장안에서 교서랑으로 있으면서 잠시 고향인 하규를 방문하여 하규 마을 남쪽의 복사꽃을 보고 석춘지정(惜春之情)을 노래한 것이다.²¹⁾ 제156수인 ‘暮立’은 백거이는 43세이던 원화 9년(814)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가족들을 데리고 하규에 내려와서 3년간 복상(服喪)하였다. 하규에서 생활하던 가을 어느날 해질 무렵 가을에 대한 깊은 서글픔에 대한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²²⁾ 제157수인 ‘寒食夜有懷’는 백거이가 43세이던 원화 9년(814)에 하규에서 한식날에 여러 가지 마음에 일어나는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③ 낙양(洛陽)

낙양에서 감회를 읊은 것은 제175수와 제183수의 2수이다. 제175수인 ‘春風’은 백거이가 60세이던 태화 5년(831)에 낙양에서 하남윤으로 있을 때 지은 것이다. 백거이는 ‘낙양의 봄바람에 매화가 피고 이어 앵두, 살구, 복숭아, 배꽃이 차례로 피며, 냇이 꽃이며 누릅나무 싹이 돋는 마을 깊은 곳에도 봄바람이 나를 위하여 와주었다고 속삭인다’고 자신이 낙양의 봄바람을 따라다니듯 봄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제183수인 ‘宿府池西亭’은 백거이가 74세이던 회창 5년(845)에 낙양에서 형부상서로 치사하고 부지서정에 머무르며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20) 하규(下邳)는 백거이의 고향으로 섬서성(陝西省) 위남현(渭南縣)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21) 김경동 편저, 『白居易詩選』 (서울: 문이재, 2002), 22-23.

22) 김경동 편저, 『白居易詩選』 (서울: 문이재, 2002), 56-57.

④ 장안-강주도중

장안-강주도중에서 감회를 읊은 것은 제162수의 1수이다. 제162수인 ‘浦中夜泊’은 백거이가 44세이던 원화 10년(815)에 장안에서 강주로 부임하러 가는 도중에 포구에서 야박하는데 강안(江岸)를 배회하면서 배대인 깊은 포구를 돌아다보니 갈대꽃 속의 외로운 등불 같은 처지인 자신의 감회를 드러낸 것이다.

⑤ 강주

강주에서 감회를 읊은 것은 제163수의 1수이다. 제163수인 ‘望江州’는 백거이가 44세이던 원화 10년(815)에 강주에서 강주사마로 있을 때 강물가를 바라보며 강주에 유배당한 자신의 외로운 심사를 노래한 것이다.

⑥ 항주

항주에서 감회를 읊은 것은 제174수의 1수이다. 제174수인 ‘潮’는 백거이가 53세인 장경 4년(824)에 항주에서 항주자사로 있을 때 저녁 밀물의 조수를 바라보고 항주에서 늪어가는 자신의 감회를 적은 것이다.

⑦ 장소미상

장소를 알 수 없는 시는 제145수, 제146수, 제148수, 제153수-제154수의 연작시, 제164수, 제173수, 제184수의 8수이다.

제145수와 제146수는 백거이가 29세 이전인 정원 16년(800) 이전에 지은 것으로 과거시험에 합격하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제145수인 ‘晚秋閑居’는 늦은 가을에 땅은 외지고 손님의 왕래도 없이 가을 딸을 쓸지 않은 채 등나무 지팡이를 끌고 오동나무 누런 잎을 밟고 다니면서 한가로이 지내는 자신의 감회를 읊은 것이다. 제146수인 ‘途中寒食’은 길을 가는 도중에 쓸쓸한 한식을 만나서 느끼는 자신의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제148수인 ‘花下自勸酒’는 백거이가 30세인 정원 17년(801)에 꽃잎이紛紛하게 흩날리는 봄날에 꽃 아래에서 술을 따라 자신에게 권유하며 지은 시이다. 제

153수와 제154수인 ‘嘉陵夜有懷二首’의 연작시는 저작시기와 장소는 알 수 없지만, 당대(唐代)의 이주(利州: 현재 중국 사천성(四川省)의 광원시(廣元市)임)의 가릉(嘉陵) 봄날 밤에 서쪽 복도에 달이 떠 침상이 반은 그늘진 곳에 홀로 누워 느끼는 것과 날이 새면서 한가한 일들이 떠오르는 마음의 감회를 노래하였다.

제164수인 ‘夜泊’은 저작시기와 장소는 알 수 없고 『白居易集箋校』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백거이가 심양(潯陽)을 다시 방문하여 주루(酒樓)에 묵으면서 비파 정가 물 익새에 스며든 가을을 바라보며 모두 지난 일이 되어버린 강주의 생활을 회상하며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회를 적은 것이다. 백거이에게 심양은 강주 사마로 좌천되어 좌절과 울분을 달랠 길 없던 자신의 모습을 비파를 타는 여인의 비참한 신세에 비유해서 노래한 ‘琵琶行’을 탄생시킨 문학의 산실이다. 그래서 심양은 과거의 그에게 가장 슬프고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다시 돌아온 그곳은 추억의 한 장소에 불과한 것을 무심하게 흘러가는 강물에서 깨닫는 것임을 은은하게 암시하고 있다. 173수인 ‘秋房夜’는 백거이가 45세-51세인 원화 11년(816)-장경 2년(822)에 가을밤에 달빛아래 서성이다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을밤의 감회를 묘사한 것이다. 제184수인 ‘傷春詞’는 백거이가 52세 이전인 장경 3년(823) 이전에 지은 것이다. 꽃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에 한 여인이 텅 빈 규방에 홀로 앉아 봄날로 인한 애상감에 젖어있는 애달픈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²³⁾

3.3 풍광

백거이가 풍광을 읊은 시는 7수이다. 제139수, 제165수, 제166수, 제167수, 제168수, 제169수, 제172수의 7수이다.

제139수인 ‘三月三十日題慈恩寺’는 백거이가 34세인 영정 원년(805)에 장안에서 교서랑으로 있을 때, 장안의 자은사를 유람하며 곧 사라지게 될 봄 경치를 유람하기 위해 온 종일 서성이며 절문에 기대서기도 하고, 붉은 등나무 꽃 아래 서있기도 하면서 그 풍광을 노래한 것이다.

23) 김경동 편저, 『白居易詩選』 (서울: 문이재, 2002), 80-81.

제165수와 제166수는 백거이가 45세인 원화 11년(816)에 강주에서 강주사마로 있을 때 지은 시이다. 제165수인 ‘答春’은 강주의 봄 풍광을 노래한 것이고, 제166수인 ‘階下蓮’은 달 빛아래 섬돌아래 핀 연꽃을 보고 그 풍광을 묘사한 것이다. 제167수인 ‘望郡南山’은 저작시기와 장소도 알 수 없고 『白居易集箋校』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제168수와 제169수는 백거이가 48세인 원화 14년(819)에 충주에서 충주자사로 있을 때 지은 시이다. 제168수인 ‘竹枝詞’는 『白居易集箋校』에 실린 ‘竹枝詞四首’ 중의 일수이다. 죽지사는 본디 사천(四川)의 중경(重慶) 일대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는데, 백거이의 죽지사는 창작이어서²⁴⁾ 더 의미가 있다. ‘구당협구(瞿唐峽口)와 백제성(白帝城)에 달이 기울어질 때 죽지의 소리가 목매는데 겨울의 원숭이와 둥지로 돌아간 새들이 한꺼번에 운다’고 시를 지었는데 풍광의 묘사가 끝 애완(哀婉)의 노래가 되어 슬프고도 아름답다.

제169수인 ‘三月三日’은 3월 3일의 강가의 봄 풍광과 자신을 바라보며 한가로이 놀러해도 짝이 없어 강복판에서 배를 돌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172수인 ‘暮江吟’은 백거이가 45세-47세인 원화 11년(816)-원화 13년(818) 사이에 강주의 강주사마로 있으면서 지은 시이다. 장강(長江)의 저문 강가를 거닐면서 전반에서는 석양의 노을을, 후반에서는 초승달을 그려 강가의 풍광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

3.4 영사(詠史)

역사상의 인물이나 사실을 읊은 시는 제158수-제159수의 연작시, 제185수의 3수이다. 제158수와 제159수의 ‘王昭君二首’는 백거이가 17세인 정원 4년(788)에 왕소군(王昭君)²⁵⁾ 궁녀의 애절한 연정을 담은 영사시이다. 제158수는 왕소군이

24) 심우준, 『香山三體法 研究』 (서울: 一志社, 1997), 151-152.

25)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二 (上海古籍出版社, 2008), 745-746. ‘王昭君二首’ 詩의 箋註 부분 및 Daum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6a2365a>>. “왕소군(王昭君)은 전한(前漢) 효원제(孝元帝)의 궁녀로 형주 남군(南郡)

호한사선우에게 시집간 후 여위고 초췌한 모습을 그린 것이고, 제159수는 호원제가 자신의 모습을 묻거들랑 모습 그대로 전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제185수인 ‘賦得聽邊鴻’은 백거이가 44세인 원화 10년(815)에 장안에서 태좌찬선대부로 있을 때, 북방의 기러기소리를 들으면서 흉노족에게 시집간 왕소군과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된 소무(蘇武)²⁶⁾의 심정을 담은 영사시이다.

4.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와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의 텍스트 비교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인 「향산삼체법」 칠언절구와 주금성 전주의 「백거이집전교」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것은 각 시의 원문 해석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인 「향산삼체법」은 한국에서 간행된 것 중 현존하는 최초본이다. 주금성이 전주한 「백거이집전교」는 명 만력 34년(1606) 마원조 간행의 「백거이장경집」을 저본으로 하고 여러 간본을 대비하여 교정한 것이다. 따라서 두 저서에 실려 있는 칠언절구 텍스트 간의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

출신으로 이름은 장(嬙)이며 자는 소군(昭君)이다. 소군은 자(字)라기보다 후궁들에게 수여하던 내명부 관작 칭호 중 하나이다. 그녀는 왕장(王嬙)이라는 이름보다 왕소군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진대(晉代)에는 왕명군(王明君) 또는 명비(明妃)라고도 하였다. 진(晉)의 문제(文帝) 사마소(司馬昭)의 이름과 글자가 같았기 때문이다. 칙명으로 흉노의 호한사선우(厚韓單于)에게 시집을 갔다. 서시(西施), 초선(貂蟬), 양귀비(楊貴妃)와 함께 중국의 4대 미인으로 일컬어진다.”

- 26) Daum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2s2153a>>
“소무(蘇武)의 자는 자경(子卿). 두릉(杜陵 : 지금의 산시 성[陝西省] 시안 시[西安市] 동남쪽) 사람이다. 아버지 소건(蘇建)은 대장군(大將軍) 위청(衛青) 휘하에서 공신이 되었고, 소무는 어려서 낭(郎)이 되었다. 무제(武帝) 때인 BC 100년에 중랑장(中郎將)으로서 흉노(匈奴)에 사신으로 갔다가 체포되어 항복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절의를 굽히지 않고 이를 거부하자 바이칼 호 주변의 황야로 보내져 19년에 걸친 억류생활을 했다. 소제(昭帝)가 즉위한 후 흉노와의 화해가 성립되어 BC 81년 장안(長安)으로 돌아왔다. 소제는 그의 충절을 높이 사 전속국(典屬國)에 봉했고, 소제의 뒤를 이은 선제(宣帝)도 그의 노고를 중시하여 관내후(關內侯)에 봉했다.”

기 위하여 편의 상 종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을 A본, 주금성 전주의 『백거이집전교』를 B본으로 약칭하여 <표 2>로 비교하고자 한다.

<표 2> 종종 10년(1515)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향산삼체법」과 주금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의 비교

구분	종종 10년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A본)	주금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 (B본)	A본과 B본의 차이 및 B본의 전교(箋校)
1) 제135수 제목	秋雨中贈元九	秋雨中贈元九	B본의 箋校: '秋雨'는 馬本에 '大雨'로 잘못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 萬首, 全詩에 의거하여 바로 잡음.
2) 제136수 제목 제4구	和兩人落中春感 人間何處不傷人	和兩人落中春感 人間何處不傷神	B본의 箋校: 萬首에는 '落中春感'이고, 全詩 주에는 '感春'임. '傷人'이 '傷神'으로 되어 있음. B본의 箋校: 宋本, 那波本 에는 '傷人'이고, 何校에는 '末刻, 蘭雪皆作人'이라 하였음. A본이 옳음.
3) 제137수 제목 제1구	華陽觀中八月十五日夜 招友翫月 人道秋中明月好	華陽觀中八月十五日夜 招友玩月 人道秋中明月好	'翫'과 '玩'은 뜻이 같은 글자임. B본의 箋校: 萬首에는 '中秋'이고, 全詩 주에는 '中秋'의 주석이 있음. 何校에는 '末刻, 蘭雪皆作秋中'이라 하였음.
4) 제139수 제2구	盡日徘徊倚寺門	盡日徘徊倚寺門	B본의 箋校: 全詩에는 '裴回'인데, 朱金城은 '徘徊'와 '裴回'는 같다고 하였다.
5) 제141수 제목	醉中留別楊六兄弟	醉中留別楊六兄弟 三月二十日別	B본의 箋校: 제목아래에 那波本에는 주석이 없음.
6) 제142수 제1구	宵漢風塵俱是繫	霄漢風塵俱是繫	'宵漢'이 '霄漢'으로 되어 있음. '宵漢'의 '宵'는 밤의 뜻이고, '霄漢'의 '霄'는 하늘 또는 창천의 뜻이다. 의미상 B본이 옳음.
7) 제143수 제목 제4구	重到毓材宅有感 祗是堂前欠一人	重到毓材宅有感 只是堂前欠一人	B본의 箋校: '毓材'의 '材'는 那波本, 馬本, 全詩의 주에는 '村'으로 잘못되어 있음. 宋本, 萬首, 汪本, 盧校에 의하여 개정함. 全詩의 주에도 '村'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祗'과 '只'는 同字임.
8) 제144수 제1구 제3구	誼誼車騎帝王州 明月春風三五更	誼誼車騎帝王州 明月春風三五夜	B본의 箋校: 萬首에는 '誼誼'은 '喧喧'임. '三五更'이 '三五夜'임. 어느 해석이 더 옳은지 가늠하기 어려움.
9) 제145수 제4구	閑踏梧桐黃葉行	閑踏梧桐黃葉行	B본의 箋校: '閑踏'이 汪本, 全詩에는 '閑蹠'임. 朱金城은 '蹠'은 '踏'의 본자(本字)이다.
10) 제146수 제1구 제2구	路旁寒食行人絕 獨立春愁在路旁	路旁寒食行人盡 獨占春愁在路旁	'人絕'이 '人盡'임. B본의 箋校: 馬本, 汪本, 全詩에는 '絕'의 주석이 있음. 宋本의 詩後註에 '盡', 一本에는 '絕'임. 那波本에는 '盡은 '絕'임. A본인 '人絕'의 뜻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짐. '獨立'이 '獨占'임. 의미상 B본의 '獨占'이 더 옳은 듯함.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구분	중종 10년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A본)	주금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 (B본)	A본과 B본의 차이 및 B본의 전교(箋校)
11) 제147수 제목	冬夜示敏集	冬夜示敏集 時在東都宅	B본의 箋校: 제목아래에 那波本에는 주석이 없음.
12) 제148수 제1구	酒醞酌來須滿滿	酒盞酌來須滿滿	'酒醞'이 '酒盞'임. '醞'과 '盞'은 술잔의 뜻임 때는 의미상 같은 글자임.
13) 제149수 제2구	蝻思蟬聲滿耳秋	蝻思蟬聲滿耳秋	B본의 箋校: '蝻思'의 '蝻'은 馬本, 那波本, 汪本, 全詩에는 '蛩'으로 되어 있는데, 宋本, 盧校에 의하여 개정함. 朱金城은 '蛩'은 '蟋蟀'이라 하였다.
14) 제151수 제3구	五聲音漏初明後	五聲音漏初明後	B본의 箋校: '初明後'는 馬本, 汪本에는 '初鳴後'로 되어 있는데, 宋本, 那波本에 의거하여 개정함. 全詩에는 '初鳴夜'의 '鳴'의 下注에는 '明'이라는 주석이 있음.
15) 제153수 제1구	露濕牆花春意深	露濕牆花春意深	'牆花'는 '墻花'임. '牆'과 '墻'은 동자(同字)임.
16) 제154수 제1구	不明不闇隴隴月	不明不闇隴隴月	B본의 箋校: '隴隴'은 馬本, 汪本에는 '朦朧'으로 되어 있고, 汪本에는 '隴隴'의 주석도 있음. '朦'은 全詩에 '隴'의 주석이 있음. 朱金城은 「文選」의 潘岳悼亡詩 三首중 2수 중에 '歲寒無與同朗月何隴隴'에 의거하여 백거이의 시가 바탕한 본이므로 '隴隴'이 옳다 하였다. 宋本, 那波本,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17) 제155수 제목 제3구	望驛臺 兩處春光同日盡	望驛臺 三月三十日 兩處春光同日盡	B본의 箋校: 제목아래에 那波本에는 주석이 없음. B본의 箋校: '春光'은 馬本에는 '風'으로 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全詩의 주에 '風'의 주석이 있음.
18) 제156수 제3구	大抵四時心撻苦	大抵四時心總苦	'心撻苦'는 '心總苦'임. '撻'과 '總'은 동자(同字)임.
19) 158수 제목 제1구 제4구	王昭君二首 滿面胡沙滿鬢風 如今却似畫圖中	王昭君二首 時年十七 滿面胡沙滿鬢風 如今却似畫圖中	B본의 箋校: 제목아래에 那波本에는 주석이 없음. B본의 箋校: '滿鬢'의 '鬢'은 榮華에는 '面'임. 全詩의 주에 '面'의 주석이 있음. '却似'의 '似'는 馬本에는 '是'로 잘못 주석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 萬首,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全詩의 주에 '是'의 주석이 있지만 역시 잘못임.
20) 제160수 제3구	猶應趁得鼓聲歸	猶應趁得鼓聲歸	'趁得'은 '趁得'임. '趁'과 '趁'은 동자(同字)임.
21) 제161수 제목	題王侍御池亭	題王侍御池亭	B본의 箋校: 萬首에는 '題王侍御池'임.
22) 제163수 제3구	猶去孤舟三四里	猶去孤舟三四里	B본의 箋校: '孤舟'의 '舟'는 萬首에 '城'으로 되어 있음. 全詩, 汪本에도 '城'의 주석이 있음.
23) 제168수 제목 제1구 제4구	竹枝詞 瞿唐峽口水煙低 寒猿闌島一時啼	竹枝詞四首 瞿唐峽口水煙低 寒猿闌島一時啼	A본의 '竹枝詞'는 B본에는 '竹枝詞四首'임. A본의 '竹枝詞'는 B본의 四首중의 一首임. B본의 箋校: '水煙'의 '水'는 榮華에는 '冷'임. 全詩의 주에 '冷'의 주석이 있음. '伍'는 '低'임. '伍'는 '低'의 속자(俗字)임. B본의 箋校: '闌島'는 樂府에 '晴島'임.

구분	중종 10년 조주갑인자훈입보자본 (A본)	주금성 전교의 『백거이집전교』 (B본)	A본과 B본의 차이 및 B본의 전교(箋校)
24) 제170수 제1구 제4구	絲綸閣下文書靜 紫薇花對紫微郎	絲綸閣下文書靜 紫薇花對紫微郎	B본의箋校: '文書'의 '書'는 萬首에 '章'으로 되어 있음. '紫微郎'이 '紫微郎'임. B본의箋校: '紫微郎'의 '微'는 馬本, 汪本, 韻語陽秋에 모두 '薇'로 잘못되어 있음. 盧校에 '凡官名宋具作紫微'라 되어 있어 宋本, 那波本, 全詩에 의거하여 개정함. B본의 '紫微郎'이 옳음.
25) 제171수 제2구 제4구	入簾新影月低眉 仍寔初寒欲夜時	入簾新影月低眉 仍是初寒欲夜時	'伍'은 '低'임. '伍'는 '低'의 속자(俗字)임. '寔'는 '是'임. '寔'와 '是'는 통용자(通用字)임.
26) 제173수 제3구	水窓席冷未能臥	水窗席冷未能臥	'窓'은 '窗'임. '窗'은 '窓'의 본자(本字)임.
27) 제177수 제목 제1구 제4구	早春持齋答皇甫十見贈 正月晴和風景新 二十年來負早春	早春持齋答皇甫十見贈 正月晴和風景新 二十年來負早春	B본의箋校: 萬首에는 '早春持齋'임. B본의箋校: '風景'의 '景'은 馬本, 全詩에는 모두 '氣'로 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全詩의 주에 '景'의 주석이 있음. B본의箋校: '二十'의 '二'는 汪本, 全詩에는 모두 '三'으로 되어 있음. 全詩의 주에 '二'의 주석이 있음.
28) 제178수 제목 제2구	前有別柳枝絕句夢得繼 和云春盡絮飛留不得隨 風好去落誰家又復戲答 任地他飛向別人	前有別楊柳枝絕句夢得繼 和云春盡絮飛留不得隨 風好去落誰家又復戲答 任地他飛向別人	A본의 제목에는 '前有別' 다음에 '楊'의 글자가 없고, B본에는 '楊'의 글자가 있음. B본의箋校: 宋本, 那波本, 汪本, 盧校에는 모두 '楊'의 글자가 없음. '前有'가 萬首에는 '前日'임. B본의箋校: '飛向'의 '飛'는 萬首에는 '吹'임.
29) 제181수 제2구	十二年來晝夜遊	十二年來晝夜遊	B본의箋校: '晝夜遊'의 '晝'는 萬首에는 '晝'임.
30) 제183수 제목	宿府池西亭	宿府池西亭	B본의箋校: 萬首에는 '宿府西亭'임.
31) 제184수 제1구 제2구	深淺舊花千萬枝 碧紗窗外嘯黃鸝	深淺舊花千萬枝 碧紗窗外嘯黃鸝	B본의箋校: '千萬'의 '千'은 馬本에는 '十'으로 잘못되어 있음. 宋本, 那波本, 汪本, 萬首, 全詩에 의거하여 개정함. '窓'은 '窗'임. '窗'은 '窓'의 본자(本字)임.

〈전주(箋注)의 출처〉

『문원영화(文苑英華)』: 명(明) 용경연간(隆慶, 1567-1572)의 간본임.
 왕본(汪本): 청(淸) 강희(康熙) 43년(1704) 왕립명(汪立名) 일우초당(一隅草堂) 간본(刊本) 『백향산시집(白香山詩集)』.
 노교(盧校): 청(淸) 노문초(盧文弼) 군서습포교(群書拾補校)의 『백씨문집(白氏文集)』.
 전시(全詩): 청(淸) 강희(康熙) 46년(1707) 양주시국(揚州詩局) 간본(刊本)의 『전당시(全唐詩)』.
 송본(宋本): 문학고적간행사(文學古典刊行社) 영인의 송(宋) 소흥(紹興, 1131-1162) 본(本)인 『백씨문집(白氏文集)』.
 나파본(那波本): 사부총간(四部叢刊) 영인의 일본 나파도원(那波道圓) 번각의 송본(宋本)인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마본(馬本): 명(明) 만력(萬曆) 34년(1606) 마원조(馬元調) 간행의 『백거이장경집(白居易長慶集)』.
 하교(何校): 북경도서관(北京圖書館) 소경의 하작(何焯)이 교정한 일우초당(一隅草堂) 간본인 『백향산시집(白香山詩集)』.
 황교(黃校): 황의(黃儀) 교정본(校訂本).
 성안(城按): 백거이(白居易) 저(著), 주금성(朱金城) 전주(箋注).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 1-5.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 2008.
 만수(萬首): 문학고적간행사(文學古籍刊行社) 영인의 명(明) 가정본(嘉靖本) 『만수당인절구(萬首唐人絕句)』.
 악부(樂府): 문학고적간행사(文學古籍刊行社) 영인의 송본(宋本) 『악부시집(樂府詩集)』.
 운어양추(韻語陽秋): 갈림방(葛立方) 저술. 명(明) 정덕(正德) 2년(1507)본의 간본임.

<표 2>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A본과 B본의 원문에 글자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A본과 B본의 글자가 유사한 한자여서 해석상의 차이가 별로 없는 사례들이 있다.

7)의 제143수 A본의 제4구 ‘秬是堂前欠一人’가 B본에는 ‘只是堂前欠一人’이다. ‘秬’와 ‘只’는 동자(同字)이다. 12)의 제148수 A본의 제1구 ‘酒醖酌來須滿滿’이 B본에는 ‘酒盞酌來須滿滿’이다. ‘醖’과 ‘盞’은 술잔의 뜻일 때는 의미상 같은 글자이다. 15)의 제153수 A본의 제1구 ‘露濕牆花春意深’이 B본에는 ‘露濕墻花春意深’이다. ‘牆’과 ‘墻’은 동자(同字)이다. 18)의 제156수 A본의 제3구 ‘大抵四時心撻苦’가 B본에는 ‘大抵四時心總苦’이다. ‘撻’과 ‘總’은 동자(同字)이다. 20)의 제160수 A본의 제3구 ‘猶應趁得鼓聲歸’가 B본에는 ‘猶應趁得鼓聲歸’이다. ‘趁’과 ‘趁’은 동자(同字)이다. 23)의 제168수 A본의 제1구 ‘瞿唐峽口水煙伍’가 B본에는 ‘瞿唐峽口水煙低’이고, 25)의 제171수 A본의 제1구 ‘入簷新影月伍眉’가 B본에는 ‘入簷新影月低眉’이다. ‘伍’는 ‘低’의 속자(俗字)이다. 25)의 제171수 A본의 제4구 ‘仍寔初寒欲夜時’가 B본에는 ‘仍是初寒欲夜時’이다. ‘寔’와 ‘是’는 통용자(通用字)이다. 26)의 제173수 A본의 제3구 ‘水窗席冷未能臥’가 B본에는 ‘水窗席冷未能臥’이고, 31)의 제184수 A본의 제2구 ‘碧紗窗外嘯黃鸝’가 B본에는 ‘碧紗窗外嘯黃鸝’이다. ‘窗’은 ‘窓’의 본자(本字)이다.

둘째, A본과 B본의 글자가 대조적이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8)의 제144수 제3구 A본의 ‘明月春風三五更’이 B본은 ‘明月春風三五夜’이다. ‘三五更’이 ‘三五夜’로 바뀌었다. A본 3구와 4구의 해석은 ‘봄바람 부는 달 밝은 깊은 밤에는 많은 사람이 즐기지만 한 사람은 수심에 잠겨 있다.’인데, B본 3구와 4구의 해석은 ‘봄바람 부는 달 밝은 보름밤에는 많은 사람이 즐기지만 한 사람은 수심에 잠겨 있다.’이다. ‘三五更’과 ‘三五夜’는 어느 해석이 더 옳은지 가늠하기

어렵다.

셋째, A본과 B본의 글자 중 문장의 전후 해석으로 보거나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A본의 글자가 더 옳은 경우가 있다.

2) 제136수 제4구는 A본의 ‘人間何處不傷人’이 B본에는 ‘人間何處不傷神’이다. ‘不傷人’이 ‘不傷神’으로 바뀌었다. B본을 대상으로 후대에 중국에서 교정한 宋本, 那波本에는 ‘傷人’이고, 何校에는 ‘宋刻, 蘭雪皆作人’이라 하였으며, 3구와 4구의 해석도 ‘다정함을 배워 지난 일을 더듬는다면 인간 세상 어느 곳인들 마음 상하지 않으리’로 해야 전후 해석이 맞다. 따라서 A본의 ‘不傷人’이 해석상 더 합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의 제146수 제1구 A본의 ‘路旁寒食行人絕’이 B본에는 ‘路旁寒食行人盡’이다. ‘人絕’이 ‘人盡’으로 바뀌었다. B본을 대상으로 후대에 중국에서 교정한 箋校에 의하면, 馬本, 汪本, 全詩에는 ‘絕’의 주석이 있다. 宋本の 詩後註에 ‘盡, 一本에는 ‘絶’이고, 那波本에는 ‘盡’은 ‘絶’이다.” 시구의 해석을 보면, ‘한식이라 길가에 행인이 끊어지니’이다. A본인 ‘人絶’의 뜻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A본과 B본의 글자 중 문장의 전후 해석으로 보거나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B본의 글자가 더 옳은 경우가 있다.

6)의 제142수 제1구 A본의 ‘宵漢風塵俱是繫’이 B본에는 ‘霄漢風塵俱是繫’이다. ‘宵漢’이 ‘霄漢’으로 되어 있다. ‘宵漢’의 ‘宵’는 밤의 뜻이고, ‘霄漢’의 ‘霄’는 하늘 또는 창천의 뜻이다. 시구의 해석은 ‘하늘과 속세의 일 모두 매였는데’이니, B본의 ‘霄漢’이 더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10)의 제146수 제2구 A본의 ‘獨立春愁在路旁’이 B본에는 ‘獨占春愁在路旁’이다. ‘獨立’이 ‘獨占’으로 바뀌었다. 시구의 해석은 ‘홀로 봄시름에 젖어 길옆에 서 있네’이니 B본의 ‘獨占’이 더 옳은 듯하다. 24)의 제170수 제4구 A본의 ‘紫薇花對紫薇郎’이 B본에는 ‘紫薇花對紫微郎’이다. ‘紫薇郎’은 ‘紫微郎’으로 바뀌었다. B본을 대상으로 후대에 중국에서 교정한 전교에 의하면, “‘紫微郎’의 ‘微’는 馬本, 汪本, 韻語陽秋에 모두 ‘薇’로 잘못되어 있고, 盧校에도 ‘凡官名宋具作紫微’라 되어 있어 宋本, 那波本, 全詩에 의거하여 개정하였다.”라고 하였으니 B본의 ‘紫微郎’이 옳다.

② A본과 B본의 시 제목에 차이가 있거나, B본의 시 제목에 소주(小注)가 있거나, A본과 B본의 제목이 같더라도 B본의 전주가 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 A본과 B본의 시 제목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3)의 제137수 A본의 제목은 ‘華陽觀中八月十五日夜招友翫月’이고, B본의 제목은 ‘華陽觀中八月十五日夜招友玩月’이다. ‘翫’와 ‘玩’은 뜻이 동자(同字)여서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23)의 제168수 A본의 제목은 ‘竹枝詞’이고, B본의 제목은 ‘竹枝詞四首’이다. A본의 ‘竹枝詞’는 B본의 四首중의 一首를 선집한 것으로 ‘竹枝詞一首’라고 제목을 정했으면 의미 전달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28)의 제178수 A본의 제목은 ‘前有別柳枝絕句夢得繼和云春盡絮飛留不得隨風好去落誰家又復戲答’이고, B본의 제목은 ‘前有別楊柳枝絕句夢得繼和云春盡絮飛留不得隨風好去落誰家又復戲答’이다. A본의 제목에는 ‘前有別’ 다음에 ‘楊’의 글자가 없고, B본에는 ‘楊’의 글자가 있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宋本, 那波本, 汪本, 盧校에는 모두 ‘楊’의 글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A본의 제목에 ‘前有別’ 다음에 ‘楊’의 글자가 없어도 의미상에 문제는 없다.

둘째, B본의 시 제목에 소주(小注)가 있어서 시의 제목을 분명하게 해 주는 경우가 있다.

5)의 제141수 A본의 제목은 ‘醉中留別楊六兄弟’이고, B본의 제목은 ‘醉中留別楊六兄弟三月二十日別’이다. 시의 제목의 의미는 ‘취중에 나만 남고 楊六 형제를 작별하다’라는 것인데, B본은 제목옆에 소주로 ‘三月二十日別’을 주기하여 3월 20일에 작별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11)의 제147수 A본의 제목은 ‘冬夜示敏巢’이고, B본의 제목은 ‘冬夜示敏巢 時在東都宅’이다. 시의 제목의 의미는 ‘겨울 밤 민소에 게 보이다’라는 것인데, B본은 제목 옆에 소주로 ‘時在東都宅’을 주기하여 당시 동도택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의 제155수 A본의 제목은 ‘望驛臺’이고, B본의 제목은 ‘望驛臺 三月三十日’이다. 시의 제목의 의미는 ‘가릉현에 있는 망역대’인데, B본은 제목옆에 소주로 ‘三月三十日’을 주기하여 백거이가 3월 30일에 그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의 제158수 A본의 제목은 ‘王昭君二首’이고, B본의 제목은 ‘王昭君二首時年十七’이다. 시의 제목의 의미는 ‘왕소군 2수’인데, B본은

제목옆에 소주로 ‘時年十七’을 주기하여 백거이가 17세에 이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A본과 B본의 제목이 같더라도 B본의 전주가 있는 경우가 있다.

1)의 제135수의 A본과 B본의 제목은 ‘秋雨_{中贈元九}’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秋雨’는 馬本에 ‘大雨’로 잘못되어 있어서 宋本, 那波本, 汪本, 萬首, 全詩에 의거하여 바로 잡았음을 알 수 있다. 2)의 제136수의 A본과 B본의 제목은 ‘和雨人落中春感’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萬首에는 ‘落中春感’이고, 全詩 주에는 ‘感春’이라 하였다. 7)의 제143수의 A본과 B본의 제목은 ‘重到毓材宅有感’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毓材’의 ‘材’는 那波本, 馬本, 全詩의 주에는 ‘村’으로 잘못되어 있어 宋本, 萬首, 汪本, 盧校에 의하여 개정하였고, 全詩의 주에도 ‘村’이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21)의 제161수 A본과 B본의 제목은 ‘題王侍御池亭’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萬首에는 ‘題王侍御池’라 하였다. 27)의 제177수 A본과 B본의 제목은 ‘早春持齋答皇甫十見贈’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萬首에는 ‘早春持齋’라 하였다. 30)의 제183수 A본과 B본의 제목은 ‘宿府池西亭’이다. B본의 전교에 의하면, 萬首에는 ‘宿府西亭’이라 하였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의 칠언절구는 51수인데 제135수-제152수, 제155수-제157수, 제160수-제178수, 제182수-제185수까지 모두 단일 제목이고, 제153수-제154수, 제158수-제159수, 제179수-제181수는 연작시이다. 시의 운자는 모두 평성(平聲)의 운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운자 중 자주 사용된 것은 陽 6회, 支 5회, 東 5회, 尤 4회, 先 4회 등이다. 칠언절구의 경우에는 1, 2, 4구 끝자에 운자를 붙이는 것이 정격이고, 제1구 끝자에 붙이지 않은 경우가 변격이다. 정격의 압운을 한 경우는 제143수, 제144수, 제145수, 제150수, 제152수, 제153수,

제156수, 제158수, 제164수, 제165수, 제167수, 제168수, 제171수, 제172수, 제173수, 제174수, 제175수, 제177수, 제178수, 제181수, 제183수, 제184수, 제185수 51수 중 23수에 불과하다. 변격의 경우가 28수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칠언절구는 51수는 「백거이문집」에서 선집되었는데, 주금성의 「백거이집전교」를 참고하면, 권13/15수, 권14/10수, 권15/5수, 권16/2수, 권18/3수, 권19/4수, 권23/1수, 권27/1수, 권34/1수, 권35/5수, 권37/1수이다. 3수는 「백거이문집」에 실리지 않았다.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 시에 대한 저작 관련사항은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저작 당시의 벼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저작 시기는 10대 2수, 20대 5수, 30대에 13수, 40대에 13수, 50대에 4수, 60대 6수, 70대 1수, 기타 7수이다. 30대와 40대의 저작이 각 13수로 가장 많이 선집되었고, 다음은 60대 6수, 20대 5수, 50대 4수, 10대 2수, 60대 1수이며, 기타 7수는 시기를 알 수 없었다. 저작 장소는 장안 14수, 낙양 8수, 강주 4수, 하규 3수, 주질 3수, 충주 2수, 항주 1수, 장안-강주 도중 1수, 기타 15수였다. 칠언절구의 저작 장소는 주로 장안이 중심이었고 다음은 낙양, 강주, 하규, 주질, 충주, 항주, 장안-강주 도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거이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벼슬살이를 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30대에는 장안, 주질, 하규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풍유시를 지었고, 40대에 장안, 강주, 충주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일부의 풍유시와 대부분의 한적시를 지었으며, 50대는 장안과 항주에서, 60대와 70대는 낙양에서 생활하면서 한적시와 감상시들을 지었다.

2) 「향산삼체법」 칠언율시의 내용에는 대부분 백거이의 일상이 담겨 있다. 그의 일상 안에 담겨진 것을 몇 가지 키워드로 도출하면 ‘인물교류’ 22수, ‘감회’ 19수, ‘풍광’ 7수, 영사(詠史) 3수로 4개 분야의 51수이다.

백거이가 교류했던 인물들과 주고받은 시들은 22수이다. 이들 시에서 백거이와 왕래가 있었던 사람들이며 원진은 제135수, 제137수, 제151수, 제155수, 제160수의 5수, 유우석은 제176수, 제178수, 제182수의 3수, 문창상인은 제179수, 제180수, 제181수의 3수, 전원위는 제150수와 제152수의 2수이다. 기타 인물을 보면,

유오는 제140수의 1수, 양육 형제는 제141수의 1수, 왕십팔은 제142수의 제1수, 이십일은 제149수의 1수, 왕시어는 제161수의 1수, 황보십은 제177수의 1수이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우인(友人)(?)은 제136수의 1수, 민소(?)는 제147수의 1수, 육재택(毓材宅)(?)은 제143수의 1수이다.

백거이가 감회를 읊은 시는 19수이다. 장안 3수, 하규 3수, 낙양 2수, 장안-강주 도중 1수, 강주 1수, 항주 1수 등 장소를 알 수 있는 곳이 12수이고, 장소미상이 8수이다.

3)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인 『향산삼체법』과 중국의 주금성(朱金城) 전주(箋注)의 『백거이집전교』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본과 B본의 원문에 글자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A본과 B본의 글자가 유사한 한자여서 해석상의 차이가 별로 없는 사례들이 있는데, ‘稭’와 ‘只’, ‘牆’과 ‘墻’, ‘牆’과 ‘墻’, ‘揔’과 ‘總’은 동자(同字)이고, ‘醜’과 ‘醜’은 술잔의 뜻일 때는 의미상 같은 글자이다. ‘伍’는 ‘低’의 속자(俗字)이고, ‘窗’은 ‘窓’의 본자(本字)이며, ‘寔’와 ‘是’는 통용자(通用字)이다. 둘은 A본과 B본의 글자가 대조적이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明月春風三五更’과 ‘明月春風三五夜’의 ‘三五更’과 ‘三五夜’는 어느 해석이 더 옳은지 가늠하기 어렵다. 셋은 A본과 B본의 글자 중 문장의 전후 해석으로 보거나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A본의 글자가 더 옳은 경우가 있는데, ‘人間何處不傷人’과 ‘人間何處不傷神’이다. ‘不傷人’, ‘路旁寒食行人絕’과 ‘路旁寒食行人盡’의 ‘行人絕’은 B본 전교의 주석과 시구의 해석상 A본의 글자 뜻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넷은 A본과 B본의 글자 중 문장의 전후 해석으로 보거나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B본의 글자가 더 옳은 경우가 있는데, ‘宵漢風塵俱是繫’과 ‘霄漢風塵俱是繫’의 ‘霄漢’, ‘獨立春愁在路旁’과 ‘獨占春愁在路旁’의 ‘獨占’, ‘紫薇花對紫薇郎’과 ‘紫薇花對紫微郎’의 ‘紫微郎’은 B본 전교의 주석과 시구의 해석상 B본의 글자 뜻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A본과 B본의 시 제목에 차이가 있거나, B본의 시 제목에 소주(小注)가 있거나, A본과 B본의 제목이 같더라도 B본의 전주가 있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칠언절구의 구성,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華陽觀中八月十五日夜招友翫月’과 ‘華陽觀中八月十五日夜招友玩月’은 ‘翫’과 ‘玩’은 뜻이 동자(同字)여서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竹枝詞’와 ‘竹枝詞四首’는 A본의 ‘竹枝詞’가 B본의 四首중의 一首를 선집한 것으로 ‘竹枝詞一首’라고 제목을 정했으면 의미 전달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前有別柳枝絕句夢得繼和云春盡絮飛留不得隨風好去落誰家又復戲答’과 ‘前有別楊柳枝絕句夢得繼和云春盡絮飛留不得隨風好去落誰家又復戲答’의 경우는 A본의 제목에는 ‘柳枝’와 ‘楊柳枝’의 차이인데, A본의 제목에 ‘楊’의 글자가 없어도 의미상에 문제는 없다. 둘은 B본의 시 제목에 소주(小注)가 있어서 시의 제목을 분명하게 해 주는 경우가 있다. ‘醉中留別楊六兄弟’와 ‘醉中留別楊六兄弟三月二十日別’, ‘冬夜示敏巢’와 ‘冬夜示敏巢時在東都宅’, ‘望驛臺’와 ‘望驛臺 三月三十日’, ‘王昭君二首’와 ‘王昭君二首時年十七’을 비교하면, B본에 ‘三月二十日別’, ‘時在東都宅’, ‘三月三十日’, ‘時年十七’ 등의 소주가 있어서 시의 제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셋은 ‘秋雨中贈元九’, ‘和雨人落中春感’, ‘題王侍御池亭’ 및 ‘早春持齋答皇甫十見贈’은 B본 전교의 주석에 의해 글자의 잘못된 글자와 교정된 경위 등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순애. 『白氏文集』 해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중앙도서관소장 고서해제』 11. 서울: 평민사, 2008. 427-434.
- 姜順愛.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5-32.
- 姜順愛.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오언율시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43-74.
- 姜順愛.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칠언율시의 저술, 내용 및 텍스트 비교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55輯(2013). 65-107.
- 김경동 편저. 『白居易詩選』. 서울: 문이재, 2002.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권1-15. 서울: 檀國大學校出版部, 2003.

박민웅. “牛僧儒傳考.” 『중국어문학논집』 제9호(1997. 8). 483-502.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 초주갑입자혼입보자본. 중종 10년(1515)경.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 초주갑입자혼입보자본각본. 명종 200년(1563).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1-5. 上海古籍出版社, 2008.

白居易, 顧學頡 校點. 『白居易集』. 大北: 里仁書局, 1980.

신민아. “元稹의 애정시 연구.” 『中國文化研究』 第20輯(2012). 47-69.

심우준. 『香山三體法 研究』. 서울: 一志社, 1997.

俞聖濬. “劉禹錫의 屈原 계승.” 『中國學研究』 第20輯(2001. 6). 183-203.

이준식. “백居易론(白居易論).” 『중국문학연구』 14권(1996). 99-144.

정진걸. “白居易詩研究.” 『東亞文化』 제44집(2006. 12). 103-120.

허경진. “백낙천 문집의 수입과 한국판본.” 『한문학보』 19(2008). 95-118.

허권수. “韓國漢文學에서의 白居易文學의 受容樣相.” 『한문학보』 26권(2012). 2265-299.

황위주. “韓國本中國試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 『東亞人文學』 제3집(2003). 317-337.

花房英樹. 『白氏文集の批判的研究』. 190-191.